

신라 광덕 (廣德) · 엄장 (嚴莊) 의 왕생설화와 원효 (元曉)

Kwang duk and Eum Jang's Tales of Going after Death to Pure Land in Shilla and Wonhyo

| | |
|--------------------|---|
| 저자 (Authors) | 장취옥 Hee Ok Jang |
| 출처 (Source) | 불교학보 29 , 1992.11, 541-550 (10 pages) BUL GYO HAK BO 29 , 1992.11, 541-550 (10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185 |
| APA Style | 장취옥 (1992). 신라 광덕 (廣德) · 엄장 (嚴莊) 의 왕생설화와 원효 (元曉). 불교학보, 29, 541-550.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8 15:26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廣德·嚴莊의 왕생설화와 元曉

章 輝 玉

- | | |
|----------------------------|--------------------------------|
| I. 머리말 | IV. 「廣德·嚴莊」의 왕생설화 |
| II. 신라의 미타신앙 흥기와 대중불교운동 | V. 「廣德·嚴莊」의 설화형성에 미친 元曉의 영향 |
| III. 元曉의 傳記 | VI. 맺는말 |

I. 머리말

정토교는 옛부터 아미타신앙의 流行에 근거하여 중국·한국·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세계에 널리 유포되고 신앙되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隋·唐時代, 한국에서는 통일신라시대가 최전성기였으며, 일본에서는 平安時代 中期이후, 점차로 융성하게 되어 鎌倉時代가 되면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三國의 정토교는 반드시 같은 경향만을 보이지는 않는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정토교는 彌陀·彌勒·華藏世界가 주된 신앙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과 고구려의 정토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신라의 정신사적인 배경으로서 그들의 신앙형태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어떤 것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 가운데 신라의 미타정토신앙은 삼국통일을 전후로 대중불교운동에 힘입어 大衆化·庶民化되었으며, 특히 전통적인 學理불교에 대해 실천을 병행한 元曉의 자유무애한 교화활동은 신라의 귀족에서 최하층계급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본 논문은 『삼국유사』 所傳의 신라미타신앙 관계설화 가운데서 원효의 生存年代와 시대배경이 같은 「광덕·엄장」의 설화형성에 미친 원효의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해 신라의 미타정토신앙과 학문불교와의 관계가 더욱 명확히 되기를 기대해 본다.

Ⅱ. 신라의 미타신앙 흥기와 대중불교운동

신라의 미타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¹⁾, 진평왕대(597~631재위)의 惠宿이 彌陀寺를 창건하고, 또한 선덕왕5년(636)에 入唐했다가 同王12년(643)에 귀국한 慈藏은 『阿彌陀經疏』와 『阿彌陀經義記』를 찬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²⁾ 그러나 미타정토신앙이 본격적으로 신라의 생활이나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즉 문무왕대(661~680)부터이며, 특히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경덕왕대(742~765)이후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타정토신앙이 삼국통일 직후에 급격히 대두하게 된 것에는 당시의 대중불교운동가들의 적지 않은 힘을 입었다고 생각된다.³⁾ 즉 초기의 신라 왕실이나 귀족을 주로 담당자로 하는 권위적 국가불교가 신라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지만, 그 수용면에 있어서는 귀족층과 서민층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으며, 국가불교는 반드시 서민층의 마음의 양식이 되지는 못했던 듯하다.

이에 양심있는 승려들은 불교의 대중화, 일상생활화를 통하여 귀족화, 권위화된 불교를 본연의 자세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승려들, 다시 말하면 통일전후에 민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중불교운동에 힘썼던 사람들로서는 惠宿·惠空·大安·元曉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권4, 「二惠同塵」條⁴⁾에 의하면 혜숙과 혜공은 같은 시대의 인물이다.

승려 혜숙은 花郎徒였지만 그것을 사임하고 적선촌에 은거하여 살기 20여년, 살육을 일삼는 화랑인 瞿昆公에게 仁人君子의 도리를 가르쳤다. 또한 진평왕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파계한 모습으로 민중들에게 신통술과 自在力을 보이면서 佛心을 심었던 것이다.

승려 惠空은 머슴의 아들로서, 어린시절부터 신통하고 신이한 행동을 했다. 출가 후에는 미친 듯이 크게 취하여, 삼태기를 짊어지고 노래하고 춤추며 거리를 돌아다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負箕和尙이라 불렀다. 그는 항상 신통력으로써 신이한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서민들에게 불교를 믿게 하였다. 원효는 경론을 찬술할 때는 언제나 그에게 물었다고 한다.

1) 金東旭, 「新羅淨土思想의 展開와 願往生歌」(『中央大論文集』2輯, 1976년). 金煥泰, 「新羅의 彌陀思想」(『佛教學報』12輯,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1975년). 李基白, 「新羅淨土信仰의 起源」(『新羅思想史研究』一潮閣, 1986년). 八百谷孝保, 「新羅社會と淨土教」(『史潮』7卷4號, 昭和13年). 三品彰英, 「新羅의淨土教」(塚本博士頌壽記念『佛敎史學論集』昭和36年) 등 참조.

2) 拙論, 「新羅淨土關係散佚文」(『佛教學報』25輯,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1988년) 참조.

3) 金煥泰, 「新羅佛敎大衆化의 歷史와 그 思想研究」(『佛教學報』6輯,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1969년).

4) 大正藏 49·1004中~5上.

승려 大安에 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송고승전』 권4, 「원효전」⁵⁾에 의하면, 원효가 주석한 『금강삼매경론』은 원래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는데, 대안이 순서를 바로 꿰어맞추어 훌륭한 경책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언제나 시장에서 銅鉢을 두드리며 ‘대안, 대안’이라 외쳤으므로 대안이라 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혜숙·혜공·대안 등은 민중들에게 올바른 불교를 인식시키기 위해 민중과 행동을 같이 하며, 시장이나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불교전파활동에 힘썼다. 그들의 이러한 대중교화활동은 원효에게로 이어졌으며,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Ⅲ. 元曉의 傳記

원효의 전기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 현재 10종류를 넘는다⁶⁾.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高仙寺誓幢和尚塔碑」⁷⁾, 『宋高僧傳』 권4의 「元曉傳」·「義湘傳」⁸⁾, 「和諍國師影贊」⁹⁾, 『三國遺事』 권4의 「元曉不羈」¹⁰⁾의 4가지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송고승전』이나 『삼국유사』 所傳에 의거한 것이다. 위의 자료에 의해 원효의 전기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元曉는 俗姓은 薛氏, 부친은 談捺乃末(官位 17계급 중 제11위)로서 진평왕 39년(617)에 押梁郡 佛地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의 이름은 誓幢이고, 정식 이름은 新幢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여 스승에게 배우는 일이 없었다.

15세 전후로 佛門에 들어가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고 배움에 정진하였다. 議論함에 있어서는 상대를 맹렬히 論難하고, 文辭는 중횡하여 감히 따르는 자가 없었으며, 敢然히 스스로의 길을 나아가 꺾임이 없었다. 三學에도 널리 통했으며, 때문에 萬人의 敵이라 불리웠다.

同門인 義湘과 함께 당나라의 玄奘三藏을 사모하여 入唐을 계획하였지만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土龕에 숙박했을 때 “三界는 唯心이요, 万法은 唯識이다. 마음 밖에

5) 大正藏 50·730上~中.

6) 以下の 본문에 든 것 외에도, 『華嚴慈談會玄記』 卷20 「海東元曉」, 『新修科分六學僧傳』 卷6 「唐元曉」, 『林間錄』 卷上 「唐僧元曉」, 『高僧摘要』 卷4 「釋元曉」, 『金剛三昧經通宗記』 卷1 「元曉法師」, 『東師列傳』 第1 「元曉國師傳」, 『指月錄』 卷7 「唐僧元曉」 등이 있다. 원효의 전기에 관해서는 拙論 「元曉의 傳記」(『東國思想』 第21輯, 동국대불교대학, 1988년) 참조.

7)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葛城末治 「新羅誓幢和尚塔碑に就いて」(『靑丘學報』 第5號, 昭和6年), 本井信雄 「新羅元曉의傳記について」(『大谷學報』 第41卷 第1號, 昭和36年).

8) 大正藏 50·729上~下.

9) 『東文選』 卷50 所收.

10) 大正藏 49·1006上~中.

따로 法은 없다”고 깨달았다. 거기서 그는 入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귀국하였다.

그 후, 그는 塵俗에 모습을 감추고 술집이나 倡家 등에 드나들기도 하고, 때로는 經論의 疏를 지어서 講說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祠堂에 앉아서 음악을 연주하고, 때로는 閭閻(村理)에 투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山水間에 坐禪하였다.

또한 원효는 파계하여 薛聰을 낳은 후 俗服으로 갈아입고 스스로 小姓居士라 불렀다. 그는 연극배우들이 가지고 노는 큰 표주박 같은 것을 만들어, 그것을 『화엄경』의 “一切無碍人，一道出生死”(일체의 自由人은 같은 道을 통해서 生死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一句에 의해서 ‘無碍’라 명명하고, 無碍歌를 지어서 세간에 널리 알렸다. 원효는 이 ‘무애’를 가지고 수많은 촌락을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민중을 교화하였다. 이에 모든 사람들은 그의 교화에 감화되어 佛陀의 名號를 알고 南無라稱하게 되었다. 신라불교의 대중화는 여기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원효는 일찍이 芬皇寺에 머물면서 『화엄경』의 疏를 찬술하였는데, 第四十廻向品에 이르러 絶筆하였으며, 그의 초인적인 활동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初地의 階位에 오른 사람이라 하였다고 한다.

원효는 神文王6年(686)에 76세로 穴寺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고려의 肅宗으로부터 和諍國師의 諡號를 받았다.

원효는 옛부터 百部の 論主로 숭상받을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수많은 저술을 찬술하였다. 그의 저술은 『義天錄』 『東域傳燈錄』 등에 의하면 86부에 달하지만¹¹⁾, 현재 『金剛三昧經論』 3권을 위시하여 『大乘起信論疏』 2권, 『法華經宗要』 1권, 『無量壽經宗要』 1권 등 23부가 전해지고 있다.

IV. 廣德·嚴莊의 왕생설화

고려시대의 승려 一然(1206~1289)이 찬술한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미타정토신앙에 관한 설화가 9개 수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4개는 造像과 法事에 관한 설화이며, 나머지 5개는 왕생의 실례를 보여주는 설화이다.

그런데 왕생의 실례를 보여주는 5개의 설화 중 「광덕·엄장」설화는 성립연대가 가장 빠르며, 신앙상의 특징도 다른 4개와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수행방법에 있어서 「광덕·엄장」설화는 觀法과 念佛을 併修하는 것에 비해 나머지 4개는 염불에만 의존하고, 왕생의 실례에 있어서도 전자는 死後에 왕생하는 것에 비해 후자는 現

11)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동국대불교문화연구소편, 1976년.

身往生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¹²⁾.

여기서 「광덕·엄장」 설화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문무왕시대에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사문(求道者)이 있었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로서, 먼저 安養(극락세계)으로 가는 자는 서로 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광덕은 경주 분황사의 서쪽 마을에 은거하여 짚신을 삼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인과 함께 살았으며, 엄장은 남쪽 산 기슭에 암자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타고 소나무가 그 그림자를 조용히 거두어 들이려고 할 때, 창밖에서 ‘나는 이미 서방에 왕생하였다. 자네도 부디 열심히 해서 속히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네’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장이 급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구름 위에서는 하늘나라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광명이 땅에 까지 뻗어 있었다. 다음 날 엄장이 광덕의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과연 광덕이 죽어 있었다. 엄장은 광덕의 부인과 함께 유해를 장사지낸 후, 그 부인에게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부인은 좋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엄장은 광덕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살게 되었다.

밤에 엄장이 부인과 정을 통하려 하자 부인은 부끄럽게 여기면서 ‘당신이 정토에 왕생하려고 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는 격입니다’하였다. 엄장은 놀라서 ‘광덕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 터인데 나와는 왜 안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부인은 ‘그 분은 나와 10여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 하루밤도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내 몸을 더럽히는 짓을 하였겠습니까? 그는 다만 매일 저녁 端身正坐하여 한결같은 목소리로 아미타불을 외우거나, 혹은 16가지의 觀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관법이 절정에 달할 때면 明月이 문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으며, 때로는 그 달빛을 타고 결가부좌하고 있었습니다. 극락왕생을 위하여 지성을 다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西方에 왕생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왕생하게 될 것입니다. 천리 길을 가는 자는 그 첫걸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서방왕생의 관법은 어째서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서방정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엄장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며 집을 나와, 원효를 찾아가서 정토왕생에 대한 요점을 물었다. 원효는 ‘淨觀法’을 지어 왕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엄장은 죄를 참회하고 오로지 觀法만을 닦아 드디어 서방에 왕생하게 되었다(쟁관법은 元曉法師本傳과 海東僧傳 중에 있다). 광덕의 부인은 분황사의 婢였지만, (실은 관세음보살의 19應身の 하나였다.

12) 拙論, 「新羅彌陀信仰의 고찰」(『白蓮佛敎論集』白蓮佛敎文化財團, 1991년).

달아 이제 西方까지 가시나이까,
 無量壽佛前에 말씀 아뢰소서,
 盟誓 깊으신 무량수불전에 우러러 두 손 모아 사뢰기를,
 願往生 願往生이라고,
 그리워하는 사람 있다고 사뢰고 사뢰주소서,
 아아!
 이 몸 버려두고 48大願이 다 성취하실까. (李 丙燾 譯)

V. 「廣德·嚴莊」의 설화형성에 미친 元曉의 영향

위의 「광덕·엄장」설화와 원효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설화의 설정시기와 장소가 원효의 생존연대 및 거주지와 일치한다는 점, 둘째는 설화의 在俗主義的인 계율사상이 원효의 주석서인 『金剛三昧經論』 속의 사상과 합치할 뿐만 아니라 원효전기의 내용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 셋째는 설화 속의 주인공의 수행방법이 원효의 『無量壽經宗要』에서 설하는 上輩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설화의 설정시기와 장소가 원효의 생존연대 및 거주지와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1. ‘문무왕시대에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사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서, 이 설화는 문무왕대(661~680)에 성립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원효(617~686)의 말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2. ‘광덕은 경주 분황사의 서쪽 마을에 살았고, 엄장은 남쪽 산 기슭에 살았다’고 하는 것과, ‘광덕의 부인은 분황사의婢였다’고 하는 것에서, 이 설화는 경주의 분황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이 무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분황사는 경주에서 이름난 사찰로서 한 때 원효가 머물면서 주석서를 찬술한 곳이기도 하며, 더구나 이 설화에서 ‘엄장은 원효를 찾아가 정토 왕생에 관한 요점을 물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엄장이 원효를 찾아가는 시기는 원효가 분황사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둘째로 설화의 在俗主義的인 계율사상이 원효의 주석서인 『金剛三昧經論』 속의 사상과 합치할 뿐만 아니라 원효전기의 내용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위의 설화는 독신 승려인 엄장보다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부인이 있는 구도자 광덕이 먼저 왕성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불교계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수행태도를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在俗主義的인 계율사상을

중시하는 내용이 원효가 주석한 『금강삼매경론』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략) 보살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두 가지 相에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출가하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在家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法服을 입지도 않고, 波羅提木叉戒를 지키지 않았으나 할지라도, 능히 自心으로써 無爲自恣하여 聖果를 얻을 것이다. 二乘에 머무르지 않고 菩薩道에 들며, 후에는 당연히 地(보살지)를 모두 닦아서 佛菩提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대력보살이 아뢰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출가하지 않았으면서도 출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그것은 왜냐하면 열반의 집에 들어가, 如來의 옷을 입고, 菩提의 座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 내지 沙門은 마땅히 존경하고 공양해야 할 것입니다.”¹³⁾

위의 ‘이와 같은 사람, 내지 사문’은 출가·재가의 相에 집착하지 않고, 法服을 입었던 입지 않았든, 罪過를 참회하든 참회하지 않든, 이러한 형식적인 事相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聖果를 얻는다는 것과, 二乘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보살도에 들어가 수행의 모든 과정을 다 닦았을 때 佛菩提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설하므로써 보살의 바른 수행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이와 같은 사람, 내지 사문’이야말로 「광덕·엄장」의 설화가 理想視하는 구도자의 일면이 아닐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 내지 사문’은 원효의 행적과 비슷한 점이 많다. 원효는 파계하여 설총을 낳은 후, 속복으로 갈아입고 스스로 小姓居士라 부르며, 연극배우들이 가지고 연기하는 표주박 같은 것을 만들어, 그것을 『화엄경』의 “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일체의 自由人은 같은 道를 통하여 생사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一句에 의해, ‘無碍’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며 민중을 교화했다. 또한 원효는 많은 경전에 주석을 붙이는 등 초인적인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初地의 階位에 들어간 사람이라 불렀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유추해 볼 때 「광덕·엄장」의 설화가 이상으로 삼은 보살상의 배경에는, 원효의 행적과 『금강삼매경론』의 사상적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설화의 수행방법이 원효의 『무량수경종요』에서 설하는 上輩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살펴보면,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에서 往生의 要因을 밝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因의 모양에 대해 經論의 설명은 서로 다르다. 만약 『觀經』에 의하면 十六觀을 설하

13) 大正藏 34·988中.

고, 『往生論』에서는 五門行을 설한다. 그러나 지금 이 『무량수경』에 의하면 三輩의 因을 설한다.

上輩의 因에 관해서는 다섯 귀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집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사문(沙門)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正因을 일으키는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둘째는 菩提心을 내는 것이니, 이것은 正因을 밝힌 것이다.

셋째는 오로지 저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니, 이것은 修觀을 밝힌 것이다.

넷째는 온갖 공덕을 짓는 것이니, 이것은 起行을 밝힌 것이다. 이 觀과 行을 助滿業이라 한다.

다섯째는 저 국토에 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이 하나는 願이며, 앞의 네가지는 行이다. 行과 願이 和合해야 비로소 저 국토에 날 수 있기 때문이다.

中輩의 因은 네 귀절로 설명한다.

첫째는 비록 사문이 되지는 못하지만 장차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것이니, 이것은 正因을 밝힌 것이다.

둘째는 오로지 저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는 많고 적은 양의 善을 닦는 것이니, 이 觀과 行을 助滿業이라 한다.

넷째는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앞의 行과 이 願이 和合해서 因이 되는 것이다.

下輩의 因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설하는데, 그들은 각각 세 귀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처음 사람의 세 귀절은,

첫째는 설령 온갖 공덕을 짓지 못하였더라도 장차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것이니, 이것은 正因을 밝힌 것이다.

둘째는 내지 十念으로 오로지 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니, 이것은 助滿業이다.

셋째는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이 願과 앞의 行이 和合해서 因이 되며, 이것은 不定性의 사람을 밝힌 것이다.

나중 사람도 세 귀절로 설명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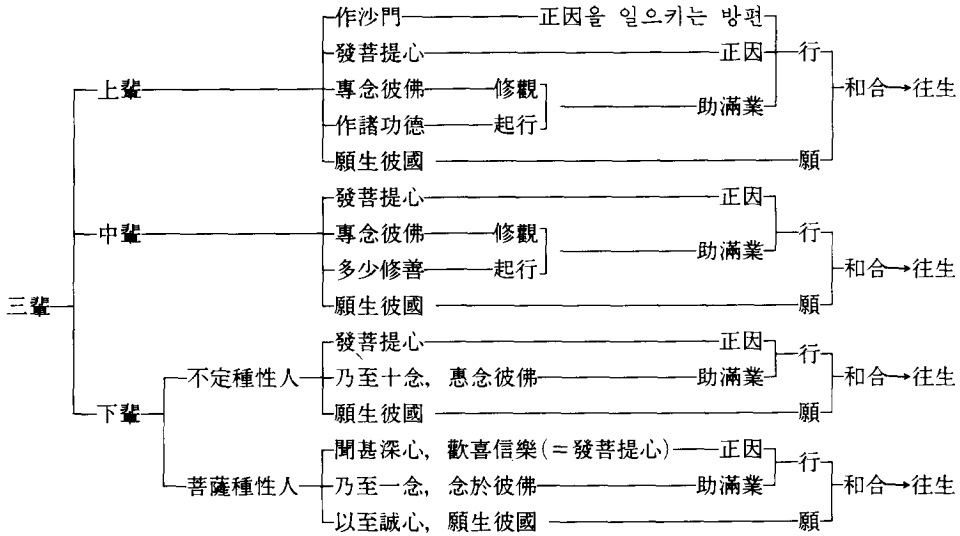
첫째는 깊고 깊은 법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좋아하는 것이니, 이것은 발심의 正因을 증복해서 나타내는 것이며, 다만 앞의 사람과 다른 것은 그 깊은 믿음을 말했을 뿐이다.

둘째는 내지 一念으로 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니, 이것은 助滿業이다. 앞의 사람에게서 깊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十念을 갖추어야만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十念을 구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이 願과 앞의 行이 和合해서 因이 되며, 이것은 菩薩種性의 사람에 대해 한 말이다. 『무량수경』에서 설하는 바는 이와 같다.¹⁴⁾

이상에서 원효의 『무량수경』 三輩分類의 해석을 살펴 보았는데, 이것을 도표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 大正藏 37·128中.



즉, 원효는 三輩의 사람 모두가 願과 行이 화합함으로써 정도에 往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願은 극락정도에 태어나고자 하는 서원이요, 行은 正因과 助滿業(助因), 다시 말하면 극락정도에 태어날 수 있는 직접요인과 그것을 돕는 갖가지 行業을 말하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正因이라 하고, 염불이나 善을 닦는 것을 助滿業이라 한다.

그런데, 또한 '願往生, 願往生'하며 願을 세워, 十六觀法 및 鍾觀法에 의한 觀法 및 口稱念佛을 併修하였다고 하는 것에서, 도표의 上輩에 속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에 의해, 「광덕·엄장」설화의 정도왕생의 방법은 『무량수경중요』의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十六觀法이란 『관무량수경』에서 설하는 열 여섯가지 관법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한편, 엄장이 원효를 찾아가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 '쟁관법'에 관해서는, 위의 설화 가운데 '元曉法師本傳'과 '海東僧傳'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원효법사본전'은 전해지지 않는다. 또한 '해동승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고려시대의 覺訓이 지은 『해동고승전』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현존의 『해동고승전』(殘卷 2권만 남아 있음) 속에는 원효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쟁관법'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VI. 맺는말

원효는 唐과 新羅를 통해 불교의 황금시대에 그 생애를 보냈지만, 唐의 불교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평생 入唐하지 않고, 수많은 경론에 주석을 부쳤으며,

한편으로는 자유무애한 행동으로 대중교화 운동에 앞장서는 등 초인적인 활약을 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學理불교에 대해 실천을 병행한 그의 교화활동은 신라의 삼국 통일 직후, 즉 문무왕시대부터 급격히 대두되기 시작한 미타정토신앙의 대중화·서민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한 시대의 師表가 되는 원효의 행적과 사상은 드디어 「광덕·엄장」 설화형성의 주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